



전남 구례군이 지난 4월21일 화엄사 입구 장죽전에 건립한 '신라 대렴공 차시배지' 비석.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를 심었던 곳은 어디일까?
그동안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의 쌍계사 입구나, 전남 구례군 화엄사 장죽전(長竹田)이나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던 '차 시배지'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21일 구례군이 화엄사 입구 장죽전(長竹田)에 '신라대렴공 차시배지(新羅大廉公 茶始培地)' 비석을 세우고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녹차 9000주를 식재하는 등 '차 시배지'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1981년 5월 25일 한국차인연합회는 쌍계사 입구에 '김대렴공 차시배추원비(金大廉公 茶始培追遠碑)'를 세운 바 있다. 차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한 '차 시배지' 논란은 차의 전래시기와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온 '대렴'의 존재, 쌍계사와 화엄사의 창건연대 고증 문제로 먼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차 시배지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문헌으로는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등이 있다.
<삼국사기> 10권 흥덕왕 3년 12월조에는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대렴이 차종자를 가져왔으므로 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入唐 廻使大廉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30권 '진주목' 토산편에는 "신라 흥

하동 vs 구례 '차 시배지' 논란 1라운드

덕왕 때에 대렴이 당나라에서 사신으로 들어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게 하였더니, 성덕왕 때에 비로소 무성하였다(新羅興德王時 入唐回使 大廉持茶種 來使植地異山 至聖德王時始盛焉)"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과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정사(正史)'의 기록을 바탕

50~60리에 걸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밭으로 이보다 넓은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록과 최치원이 지은 진검국사 대공탑비문,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남겼다고 하는 '대렴공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종자는 화개동 계곡에 심었다' 기록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쌍계사 시배지'를 반박하는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

하동-초의선사 <동다송>, 정약용 글 근거 제시 구례-"대렴공보다 연기조사가 먼저 재배" 주장 전래시기, 쌍계·화엄사 창건연대까지 쟁점

으로 한다면 처음 차를 심은 때가 흥덕왕 3년, 즉 828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를 심은 곳은 '지리산 일대'라고만 명기되어 있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리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입구는 1985년 한국차인연합회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차 시배지로 지목하고 '김대렴공 차시배추원비'를 세운 후 통상적인 '차 시배지'로 인식되어 왔다. 쌍계사 입구로 차 시배지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초의 선사의 <동다송> 중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나무가

루어지고 있다.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828년 당시 쌍계사는 창건되기 전이었으며, 화엄십찰 중의 하나인 화엄사를 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화개동 계곡에 차를 심었을 리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4월 21일 열린 '장죽전시배지 학술발표회'에서 '신라차 시배지 연구'를 발표한 이형석 박사(한국차문화연구원)는 "대화엄사사적"과 <조선의 차와 산>에서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지목하고 있고, 828

년 11월 15일 양자씨의 다도무 공연과 신라화랑 다유회 공연, 안숙선 명창의 공연을 비롯해 다도구 전시회와 무료 차 시음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2)747-0474

'국제 녹차 심포지엄' 개최

태평양 실목차와 한국식품과학회(회장 김성근, 단국대 교수)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8회 국제 녹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가족



전남 구례군은 지난 4월21일 차시배지 비석을 세우고 '장죽전 시배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차시배지 관련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1981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입구에 세워진 '김대렴공 차시배추원비'.

당시 쌍계사는 창건되지 않았다"며 "화엄 10찰 중의 하나인 화엄사에 고승대덕들이 주석하고 있었으며, 왕명에 의해 차를 기림식수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1991년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된 '구례장죽전 녹차시배지' 용어에서 '녹차'를 '차'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석정원 차회를 이끌고 있는 선혜 스님은 "한국의 차시배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화엄사지>에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장죽전에 차종자를 심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화엄사 장죽전을 차 시배지로 봐야 하며, 그 시기도 흥덕왕 3년보다 74년 정도 앞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죽전의 위치가 화엄사 일주문 근처인지 아니면 화엄사 구층암 근처인지 혹은 제3의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한국차문화협회는 이능화의 <조선 불교통사>에 전하는 '김해 백월산(白月山)에는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허왕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 고 전한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에 근거해 백월산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에 '가야 차시배지 비'를 건립할 계획이라 또 다른 차 시배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②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26)

불교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사찰의 새로운 건립을 금지하고 전국 사사(寺社)를 36사(寺)로 통합하도록 했다. 자연히 사원을 중심으로 했던 고려시대의 웅장한 다풍은 선비들 사이에서 꽃피우게 된다. 가정의례에도 차를 쓰고 묘제(墓祭)나 시제(時祭)에도 차례를 행하게 된다. 일본과의 교역에도 다기나 차가 많이 소요되어 각 지방마다 자기가 생산된다. 자기의 질은 떨어졌지만 수적으로는 팽창한다. 명나라와도 차 교역은 계속된다.

나라가 안정되어 정비되니 자연 지방의 산물(産物)에 관한 특징, 유통 및 농작법이나 기타 백성들에게

쓰지 말고 차를 쓰도록 했다.
③ 서헌부에서 시작된 다시(茶時)가 다른 부서에 확대되었다.
④ 원도진(源道鎭)이 자완 1000여개와 다른 예물을 보냈고, 11월에는 등원만정이 자완 1000여개를 보내왔다.
⑤ 우대언, 허성을 보내어 범유에게 작설차 등을 내렸다.
⑥ 묘제까지 차를 올린다는 것은 차가 생활 속에 뿌리내려 조상들도 차를 많이 마셨다는 증거다.
⑦ 창성이 채문자발(彩文磁鉢) 10벌과 자완 20벌을 요구하니 그대로 내리고 방동아(房童兒) 등에게도 예물을 주었다.

전국 사사 36사(寺)로 통합 선비들 사이 다풍 융성

필요한 저서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서적들이 글 모르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배려가 없어 농업이나 어업은 물론 요업(窯業)같은 특수산업은 기술적 장려나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도 변통기를 차르고서 다풍이 일변하여 소강상태를 이루었고, 일본은 계속해서 무사 중심의 다도가 확대되어 갔다.

① 서거정은 조선 초의 학자로 호는 사가정(四佳亭)이었다. 중국에 다녀와서 차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사잠산인해작설차'를 비롯한 다시 수편이 전한다.

② 예조(禮曹)에서 묘제에도 술을

⑧ 심주(1427~1509): 명대 화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서적들이 글 모르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배려가 없어 농업이나 어업은 물론 요업(窯業)같은 특수산업은 기술적 장려나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⑨ 왕비용: 명대인으로 차를 즐겨 <육다기사(六茶紀事)>를 지었다. 이는 그가 관선령으로 있을 때 친히 차일을 맡아 공다(貢茶)까지 관리하며 지은 작품이다.
⑩ 삽자기: 명대 산문가로 그가 옥중에서 지은 <초목자(草木子)> 권3에 '어차(御茶)'에 관한 기록이 있어 다시(茶史)상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⑪ 복강현 팔자(八姉) 주서선사가 차씨를 심고 부초(釜炒)법을 받아들여 후에 팔녀차(八女茶)로 이름을 얻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국	중국	일본
1420 서거정의 출생 ① 1421 묘제(墓祭)에 차를 씀 ② 1423 사사(寺社) 창설 언급 모든 관청에서 다시(茶時)를 행함 ③ 1424 사사를 선교양종으로 36사로 통합 1425 경상도 지리지 간행(하연) 1426 일본 사신이 자완 천개를 올린다 ④ 대마주에 다식을 보내다 1427 범유에게 작설차를 내림 ⑤ 1429 삼국시조(三國始祖廟)에 다례를 올림 ⑥ 창성에게 발(鉢)과 완(碗)을 주다 ⑦ 명나라 사신 요구 품목에 다기와 차가 있었다 <농사직설(農事直說)>	1426 청고에 쌓인 차로 관리의 불공 지급 1427 심주(沈周)의 출생 ⑧ ⑨ 왕비용의 활동 ⑨ ⑩ 삽자기(葉子奇)가 활동 ⑩	1424 주서(周瑞) 선사가 차를 심고 부초차를 만든다 ⑪

황실다례 체험 행사

조선 황실 다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장경궁에서 열린다.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황실다례보존회는 전통 황실 다례 의식을 배워볼 수 있는 '황실 행다례 체험 행사'를 4-6월, 9-11월 동안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강의는 황실의 차문화

에 대한 설명과 행다례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매회 10명으로 제한한다. (02)762-9515

한국차인회, 팔도차문화 잔치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5월 4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팔도 차문화 잔치'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펼쳐지는 이날 행사에서는 무형문

불기 2549년 마하몰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 계 중보상품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 사찰용 연등전선 (범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할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처님 유선비
우리의 부처님 유선비
우리는 귀소할 때마다
가득을 부처님 지평
부처님 유선비로 만나는 마음으로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 × 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 봉축리본 세트
· 일 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 연꽃리본
· 25,000원
* 100개 1세트 (공통)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차량용 깃발 · 4,000원
■ 만지기/법륜기/불고기 · 20,000원
* 다른 사이즈 제작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 4개 1세트
■ 봉축 버튼
· 4,000원 * 10개 1세트

<p>■ 공단등 · 大-23cm-18, 小-15cm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어가)</p>	<p>■ 캐릭터비닐터만등 · 32cm × 32cm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색상별</p>	<p>■ 황금연등 · 20인치, 13인치, 10.5인치, 8인치, 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성유 사용</p>	<p>■ 연꽃등 · 진분홍, 연분홍, 주황, 연두, 보라</p>	<p>■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속사, 프라스틱 · 고급분업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p>
<p>■ 중등 · 40cm × 27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p>	<p>■ 중경등 · 빨강, 분홍, 노랑, 초록, 파랑</p>	<p>■ 만등 · 32cm × 32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어), 오색 등</p>	<p>■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 노랑, 초록, 빨강, 파랑</p>	<p>■ 팔각조림등 · 26cm × 28cm · 핑크, 오렌지, 초록, 파랑, 분홍, 빨강, 분홍노랑, 분홍노랑, 분홍노랑</p>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